



◇동국대 목정배 교수가 12일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 고별 강연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강의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밖을 서성거렸다. 자리가 없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동국대 목정배(불교학) 교수가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 고별강연을 가졌다. 목 교수는 이날 '인간, 자연, 불교'를 주제로 1시간 동안 고별 강연을 했다. 목 교수가 20여 년 지도교수로 있었던

“삼독심·번뇌 녹여버릴 마음속 종말처리장 시급”

목정배 동국대 교수 정년퇴임 고별강연

학장 보광 스님을 비롯한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 대한불교법사회원, 불교학 생회원 등 25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목 교수는 강연에서 '인간은 오를

번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마음속에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남포동 골목에서 김동화 박사가 쓴 <불교학 개론>을 구해 읽고 감명 받아 1958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는 목 교수는 1975년 전임 강사로 재직하던 이래 석사 50여 명과 20여 명의 제자를 키워냈다. 1962년 재창립 과정에서 20여 년 지도교수를 맡았던 동국대 불교학 생회는 동문 수가 1천여 명에 이른다.

평소처럼 열정적인 강연을 마친 목 교수도 불교학 생회 제자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받고,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동불가(동국대 불교학 생회가)'를 부를 때는 잠시 감회에 젖었다. 정각원은 경희궁 부속건물인 '송정전'을 동국대로 옮겨와 '정각원'으로 이름을 바꿀 때 실무를 맡았던. 강사시절의 그가 '한번이라도 여기서 강의해 봤으면...'하는 서원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다.

목 교수는 그러나 40여 년 몸담았던 동국대는 떠나지만 9월 개강하는 서울대학원대학 학장으로 후학 양성의 길을 이어간다.

권형진 기자 jny@buddhapia.com

75년 전임강사로 출발, 석사 50명 키워

9월개강 서울대학원대학 학장에 취임

동국대 불교학에서 그의 정년퇴임을 맞아 종강 법회를 확대해 정년퇴임 고별강연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고별 강연에는 동국대 불교대

이나 오수를 치우기 위해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지만 사람 마음 씌는 것이 제일 더럽다. 그것은 치울 수도 없다며 '아(我)'자를 떼어버리고, 삼독,

“40~50대 보살들 ‘바른 신행한다’ ‘기복불교 주범’ 잘못된 견해”

재가연대 서울거주 여성불자 설문조사

소위 '차마불교'로 폄하되어 온 40~50대 이상의 여성불자들이 기복 불교의 주범이라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세가 서울지역 25개 사찰, 40~50대, 신행경력 10년 이상의 주부,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에 있는 여성불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여성불자들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웃과 중생을 위한 기도야말로 진정한 복전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는 재가연대가 발행하

는 격월간 <참여불교> 5·6월호에서 특집으로 다룬 '복을 빌면 복은 오는가'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설문내용에 따르면 '가복천지의 무언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는가'라는 질문에 43% 이상이 '마음의 평안' (22.8%), '깨달음' (15%), '좋은 사람과 의인' (5.6%) 등 수행, 마음공부와 연관 지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번창·학업성취·승진 등을 바라는 기복적 성향은 20%에 불과했다.

또 '불교발전 혹은 사회, 중생을 위해 기도한 경우 주로 무엇을 소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해결' (32.8%), '전쟁과 다

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21.2%) 등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불전의 액수와 기도 효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별로 상관 없다' (83.7%)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등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소원 성취 효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91.1%)이 나왔다.

'어떤 기도가 가장 공덕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 (30.1%),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한 기도' (29.3%)가 가장 공덕이 크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서 상임대표는 "대다수 여성 불자들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대승불교의 기도공덕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일"의 차원을 넘어 '살'과 '실'에 이르게 하기 위해, 스님과 재가불자 지도자들이 이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신세대 포교는 이제 만화화'

대구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가 만화 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를 창간했다. 7월1일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는 '불교 만화이야기'는 신세대가 좋아하는 만화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격월간으로 발간된다. 불교계에서 만화 잡지가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 만화이야기'는 일반 불교 잡지와는 달리 주 독자층인 어린

신세대포교 만화로 '불교만화이야기' 창간

이·청소년의 취향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 불교설화, 큰스님 이야기, 생활 법문, 학생들 작품 소개, 불교문화계 소식 등 다양한 불교만화와 불거리를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공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시다' 코너를 삽입해 법회 응모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모든 지면을 컬러로 제작, 다양한 색채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했으며, 80쪽 분량으로 읽는 부담을 덜었다. 불교만화연구소는 '불교만화이야기'가 포교지로 제작되는 만큼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학교 학생회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한영우 기자

한마음선원, 연등축제 최우수상 수상



◇한마음선원 최선진 신도회부회장이 봉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택스님으로부터 최우수상인 봉축상을 받고있다.

고속철 금정·천성산 통과 부산시민대상 여론조사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 대책 위' (이하 대책위)가 3일부터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관통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에 나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고속철도의 금정산·천성산 통과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속적인 여론수렴과 홍보활동을 통해 고속철

도의 금정산·천성산 관통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북한산공원 살리기 삼보일배 정진행사

세 걸음 후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三歩一拜)' 참회정진을 통해 북한산 지키기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19일 열린다.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저지를 위해 송추에서 정진 중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북한산 회동사 스님 등 15명의 스님은 이날 오전 10시

새로운 사회복지방법론 모색

서울노인복지센터, 29~30일 워크숍 열어

새로운 사회복지방법론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소장 지안)는 29~30일 이틀간 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복지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계량이나 수치 중심으로 수해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던 양적 연구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발달과 이해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독일 마인츠대 데틀레프 가이즈 교수가 '사회복지에서의 질적 연구' △악셀 필하머(마인츠대 연구원)박사가 '객관적 해석학' △실케 바르만(마인츠대 연구원)박사가 '생애사 분석'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이효선 교수가 '도덕

적 목소리'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이에 앞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복지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지안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소장)과 차홍봉(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역할'과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사회문화적 통합의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김동일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변재관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지역개발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철우 기자



◇일심화보살이 동국대 송석구 총장에게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고 있다.

80세 이일심화 보살 동국대 아파트 기증 "불교발전엔 써달라"

80세 노보살이 불교학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아파트를 기증해 화제다.

이일심화 보살(본명 이명기)은 11일 동국대 송석구 총장을 찾아와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서울전동동 소재) 한 채를 기증했다. 이 아파트는 일심화 보살이 수십년간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전재산이다.

일심화 보살은 평생 혼자 살면서 모은 전재산을 기증하면서 "평소 불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기증함으로써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14개 업체 대표들도 2천8백만원에 모금하여 일심화 보살을 기증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권형진 기자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일시** : 2002년 7월 17일 수요일 11시
 ■ **장소** : 능제·연꽃축제 대행사장

모든 방생물은 주최인 성모암에서 준비하며 자라, 청거북, 가물치, 등등 방생금지 마오비착오없이 바립니다.

※ 점심은 성모암에서 일괄 무료로 준비하오니 사찰에서 동참하시는 스님께서는 미리 전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성모암 종무소
 Tel. 063)544-0416, Fax. 063)542-6991

성모암 능제 연꽃축제 및 수륙방생 천도제

삼보전에 귀의아름고
 조선 명종때 불거촌에서 탄생하신 진국대사님은 동양의 소 석가라하여 진나라 능인적록(能印寂錄)의 자리에 오르사 진국이라 칭송하여 후대에 업적이 길이남아 우러러 전한다 그중 만경의 능제에 남긴 업적은 아도 기어하여 구전됨에 후학들이 아래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행중에 밝은 예안으로 보니 지금의 능제 저수지에 고기잡이하는 처사님과 아이들보고 황금이 달려가야 단을 치니 처사님들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되려 매운탕을 권하며 대사를 놓아어 이에 대사는 받아먹고 용변으로 죽은 물고기를 살아숨쉬는 고기로 다시 방생하는 기이한 행적을 보이사 모두 놀라워드려 절하며 참회 하였다 전합니다.

바로 그 능제 저수지에 지금은 연꽃이 만발함에 축제를 열고 수륙 천도제와 방생법회를 병행하오니 모두 참석하시길 모든 대중에게 아립니다.

성모암 대종일동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래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원천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정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지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면저서, 중풍, 당뇨, 암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